“도 닦는 사람의 그림”…성파 스님 ‘선예’를 만나다

경기도박물관 ‘성파선예’展
개관 30주년 기념해 개최
수중 옻칠회화, 도자불상 등
성파 스님 작품 150점 전시
“우리 모두 도 닦는 사람”

용인=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내 작품이 서구의 예술과 다른 것, 차별화된 것은 바로 ‘도 닦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도 닦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도를 닦고 있어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2월 9일 열린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기자정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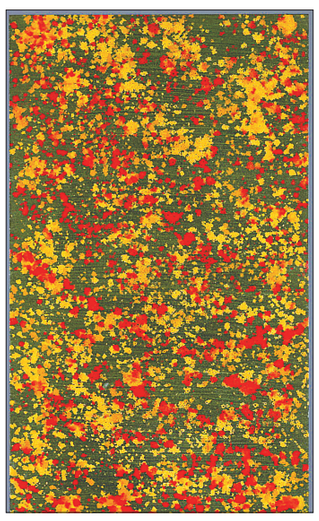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수좌들을 제접하는 선지식인 성파 스님이 깨달음의 자리를 내보이는 방법은 할과 방에만 있지 않다. 스님은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화업(畫業)을 펼치며 ‘선(禪)’의 진수를 보여 준다. 그래서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세간에서는 ‘선예(禪藝)’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스님이 내보인 ‘깨달음의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직무대행 박본수)은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박물관 전시마루에서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개최한다.

성파 스님의 수행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통도사 서운암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삼천불전(三千佛殿) 도자불상 일부, 장경각(藏經閣) 16만 도자대장경판의 일부, 그리고 불교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 작품 등 총 15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6m 규모의 수중 설치 옻칠 회화 등 실험적 연출을 통해 ‘선예’의 확장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특별전 ‘성파선예’ 전시 모습. 성파 스님이 조성한 도자삼천불상과 옻칠회화 ‘미륵존’이 전시돼 있다.



2025년 신작 옻칠회화 ‘2025-020’.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영겁(永劫)-아득하고 먼’에서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아주 먼 옛날, 혹은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우주의 시작점을 표현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주목할 작품은 성파 스님이 직접 만든 ‘옻칠 그림’이 있다. 끈적한 질감의 옻을 성파 스님은 붓으로 억지로 그리는 대신, 물처럼 흐르고 바람에 날리듯 자연스럽게 굳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통해, 물질(옻)이 정신(예술)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제2부 물아불이(物我不二)-니가 내다’에서는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삼천불전 도자불상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 있는 불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귀여운 아기 부처님도, 근엄한 부처님도 모두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전한다. 물 속에 비치거나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 진짜와 가짜,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제3부 문자반야(文字般若)-글자 너머’는 불교 핵심 경전 중 하나인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다. 하지만 글자를 읽는 것보다 그 뜻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흙을 구워 만든 ‘반야심경 도자판’으로 탑을 쌓았고, 옻으로 쓴 글씨(칠서)들을 전시했다. 눈에 보이는 글자(껍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깨달음(알맹이)을 보라는, 스님이 대중에게 던지는 화두다.

‘제4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마음대로’는 성파 스님이 가장 자유롭고 즐겁게 작업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전시 제목 그대로 ‘마음대로’ 유희하는 알록달록한 색깔과 기하학적인 무늬가 가득한 옻칠 그림들이 선보인다.

“옻칠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성파 스님이 깊은 명상에 잠긴 상태에서 손이 가는 대로 맡겨 둔 그림들이다. 그랬기에 작품을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오로지 관람객들의 역량과 몫에 달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박물관은 “서양 예술의 ‘무의식 기법(오토마티즘)’과 비슷해 보이지만, 스님의 작품은 수행을 통해 옻과 하나가 된 경지에서 폭발하듯 그려 냈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작가의 의도나 계획 없이, 스님 자신마저 잊고 오직 ‘옻칠’ 그 자체가 되어 버린 몰입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는 벽에 걸린 작품 외에 공중에 내건 옻칠 염색 작품과 수중에 잠긴 옻칠 회화 작품이 연출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성파 스님은 개막식 당일부터 3일간 드론과 비행선을 이용한 옻칠 염색 작품의 공중 전시를 진행했다.

전시 기간 중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파 스님의 수행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연계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3월과 4월에 각각 2회씩 열리는 특강에는 김한수(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정종미(한국화가, 재료학자), 노성환(울산대 명예교수), 윤재갑(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감독) 강사가 나선다. 5월 7일에는 금강 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성파 스님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설날에는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연계 참여프로그램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옻구슬 소원팔찌 만들기)를 운영한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설날 당일 제외) 운영하며 선착순 현장 접수로 운영한다. 또한 3~4월에는 성인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박본수 경기도박물관 관장 직무대행은 “이번 전시를 통해 수행자이자 예술가인 성파 스님이 전통문화에 기울여 온 관심과 미술 재료에 대한 탐구·실험정신을 대중이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무념으로 그렸으니 마음으로 보세요”



기자정담회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저는 통도사에 살고 있는 성파라고 합니다.”

2월 9일 경기도박물관 전시마루에서 열린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기자정담회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스스로를 이처럼 소개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날 성파 스님은 조계종의 정신적 지도자가 아닌 깨달음의 자리를 작품으로 승화하는 예술가로서 대중 앞에 섰다.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성파 스님은 예술세계의 정수가 담긴 옻칠 회화·도자삼천불상·도자대장경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성파 스님은 작품의 차별점을 ‘수행’으로 꼽았다. 스님은 “미술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자격지심이 있어 그림을 내놓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서양미술 답사를 했지만 결론은 ‘해 볼 만하다’였다”며 “내 작품이 서구의 것과 다른 것은 ‘도 닦는 사람[수행자]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차별점이 생긴다”고 술회했다.

성파 스님의 창작 과정은 구도에 가깝다. 당장 재료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정진의 연속이다. 특히 ‘옻’이라는 물성의 활용한 스님의 작품은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에서 독자적인 예술 장르를 만들어 냈다. 이번 전시에서도 2025년 신작 옻칠 회화들이 대거 소개된다.

성파 스님은 “지난해 통도사 경내 보경호에서 옻칠 회화를 물에 띄우는 전시회를 열었다. 물에 그림을 올린 것은 방수·방충 등이 가능한 옻칠 회화라서 가능했다”면서 “여러 재료를 사용해 봤지만 옻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 옻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기자정담회
‘한로축괴 사자교인’ 비유 들며
“相 얽매이지 말고 근본을 보라”

이처럼 구도 과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성파 스님은 “‘매화를 그려야겠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려 낸 그림이 아닌 아무 생각 없이[無念] 그려 낸 그림들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가진 마음의 거울로 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전등록〉의 ‘한로축괴 사자교인(韓盧逐塊 獅子咬人)’ 비유를 소개했다. 한로는 명견이지만 던져 주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인간을 문다는 의미로 “상(相)을 쫓지 말고 근본을 보라”는 당부였다.

성파 스님은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잘 안 보인다. 마음의 거울에도 때가 끼면 상을 잘 구분해 낼 수 없다”면서 “각자 마음의 거울에 무엇이 비추는지를 잘 살피라”고 전했다.

더불어 스님은 ‘도를 닦는’ 행위가 특별하지 않다고 했다.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진리는 존재했다”고 강조한 성파 스님은 “우리 인생은 진리에 의해 ‘성주괴공’한다. 이뤄져 존재하다가 쇠퇴하고 공(空)으로 돌아간다”면서 “종교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주의 진리는 존재했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설했다.

작품을 본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내 작품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없이, 어떤 이해관계나 갈등 없이 제작됐다”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전시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갈등과 분쟁 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신중일 기자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 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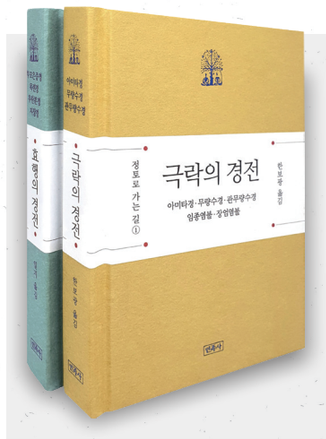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